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3호 [무제 제25466호] 주제 105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퐁 신문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1344군부대에 관하여 구문대를 시찰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구문대에서 실전과 같은 복잡한 전투상황들과 조건들을 조성해 놓고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민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을 임의의 시각에 적과 싸울 수 있게 준비시키며 대해 강조하시면서 싸움준비원소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미국의 UPI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조선의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구문대에 달고있는 전투임무와 전투동원준비상태, 훈련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다.  
그이께서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구문대나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과 함께 훈련에서 주제성, 실용성, 과학성을 철저히 구현할 것이라며 강조하시었다.  
또한 구문대지휘부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시어주시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군인들에게 양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일본의 교도통신,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 국제방송망, 환구망, 민주통교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포럼까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약원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나이지리아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교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위인들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그분들의 헌명한 행동에 오늘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인종과 국적, 신앙을 초월하여 우리는 이인위원을 과유명으로 삼으신 김일성위인들의 가르치심대로 명도자와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룩할 때 제국주의의 예후에서 해방된 새 사회를 일떠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각하께

가장 존경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2017년 백두산위인 칭송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국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전체 성원들과 조선의 벗들은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은명도자,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생애와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행동에서 커다란 감동과 고무를 받고있습니다.  
백두산위인들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그분들의 헌명한 행동에 오늘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인종과 국적, 신앙을 초월하여 우리는 이인위원을 과유명으로 삼으신 김일성위인들의 가르치심대로 명도자와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룩할 때 제국주의의 예후에서 해방된 새 사회를 일떠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결성식이 3일 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로씨야주제사상연구회를 비롯한 11개 지역의 주제사상연구조직인사들과 대중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로씨야주제사상연구회회장의 위원장 드미트리 코스멘코가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로씨야의 주제사상연구회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조선과의 친선협회 국제회의 진행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조선과의 친선협회 국제회의가 5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단마르크,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에스파냐,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조선과의 친선협회지부 대표가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과의 친선협회 아

##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자

### 200일전투 주요지표계획 앞당겨 수행 기계공업성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1차 5년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투쟁의 열풍이 일고 있다. 기계공업성에서는 200일전투 주요지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말까지 기계공업성적으로 200일전투 공업총생산액 계획이 105%로 수행되었으며 자동차, 트랙터, 변압기, 발전기, 전선류, 철수재, 철강 등 주요지표계획이 완수 또는 초과완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경제발전의 열풍이 불어오면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성 당조직에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투를 수행하는 데서 오늘의 200일전투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성과 여러 편의 국인들에게 더욱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최선책으로서 사업을 일관하여 틀어쥐고 내밀었다. 특히 상정된 일일, 주별, 월별 200일전투목표를 주별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지표에 따른 생산계획을 무조건 초과하도록 조직적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일군들은 최선적지휘관이 되어 현수공



대성철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대안중기계합업기업소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용근 찍음

제적인 변압기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데 기여하였다.  
중심의 불길은 대동강전기공장, 평양 3 26 전선공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동강전기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는 만리마키수의 노예를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변압기생산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평양 3 26 전선공장은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철연선, 전력케이블 생산계획을 176%, 202%로 훨씬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산부문의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할 인민군대의 투쟁정신을 본받자! 수산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상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량에 바다풍이가 증가하게 하라!”

##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강하천정리작업 본격적으로 추진

우리의 당이 령도하신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자! 강하천정리작업 본격적으로 추진  
무 산 군 에 서  
수도에 화합하여 각지 돌격대원과 군인들이 지금 강하천정리공사에 50%이상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강하천정리공사는 수심 10m의 심도작업과 10여만㎡의 막대한 토목작업을 동반하는 매우 방대한 공사업이다.  
전장지휘부인들은 전투주요성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방대한 토목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데 맞게 시공관리부 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  
수신군 강하천정리공사에 투입된 인민군대원들은 10여km에 달하는 강하천정리공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수신군 강하천정리공사에 투입된 인민군대원들은 10여km에 달하는 강하천정리공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수신군 강하천정리공사에 투입된 인민군대원들은 10여km에 달하는 강하천정리공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 백암군 덕포지구 토지개발전투 활발

백암군 덕포지구 토지개발전투 활발  
우리 당의 현대적 구상에 따라 백두산기슭의 드넓은 백암군 덕포지구에서 토지개발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토지개발사업은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백 배의 담근 덕포지구에서 일떠서고있는 대규모의 감자농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수신 유년을 높이 말하고 도당위원회에서는 그 완성을 위한 용량이전투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현지에 도착한 도급, 시급,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편대, 대대, 전구원들은 신속을 전개하기 바쁘게 전투에 진입하였다.  
당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투장면에 나간 도당위원회의 인민군대원들은



정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여!

—로동당만세소리 천지를 진감하는 북변천리를 밟으며—

조선의 60여일이 지나갔다. 우리는 지금 자연의 광만이 모든것을 휩쓸어갔던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을 다시 밟고있다. 너무나 세찬 총격에 심장은 어찌될것 같나. 함해도 난년도 아닌 불과 수습일사에 이렇듯도 답답할수 있던 말인가. 회령, 무연, 연성, 온성, 경원, 경흥. 이 땅은 더는 제인의 지명들이 없다.

1. 인민의 집-사회주의보금자리

불과 50여일만 1만 1,900여세의 살림집건설 완공, 수습계의 세 거리, 새 마을 형성!

조국의 환관에서 배아리지는 승리의 함성이 온 나라를 환희로 불꽃에 한다. 전승의 소식이란듯 이 땅의 모든 일리와 가정들이 격정에 설레이고 세인을 놀래우는 북구 기적을 창조한 북부평해지역에 보내는 천만군민의 열렬한 축하가 전화위부의 대지로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군민대단결, 현역일체의 위력으로 조국의 북변광명 그 어떤 천지창조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국의 북변천리에 펼쳐진 사회주의발전지가 우리를 부른다. 도시를 방불케 하는 새 아파트들이 어찌생물 이루어 솟아올랐다. 벽돌같은 지붕들을 얹은 멋진 새 집들 사이에서 지붕이나 미치도 별상상에 와있을것만 같았다. 새로 지은 크고 번듯한 학교 건물은 바라보노라면 북방은 북변땅이아닐까 같고, 노예소리가 끊기 귀전에 울리는것 같고 타이소기 유치원들은 통화수의 그림자 아래 놀이를 즐긴다.

북방의 실천공과 건축에도 끄떡없이 열려진 새 집들은 길도 멋있고 문물도 일품이 돋아나서 그 조곤함과 정갈함에 마음이 후련되다. 산뜻한 패자처럼 살림방들, 벽돌같은 다일들이 반짝이는 환한 부엌, 딸나 무들이 그득히 쌓인 창고...

바라볼수록 유망소에 온갖 한 기분이요 하루일과이러도 무척이요는 흥동을 겸할수 없게 하는 새 집들이다.

대우 놀라운것은 이런 마을, 이런 풍경이 하나의 마을이나 하나의 리, 군도 아닌 여러 리, 군들을 잇닿으며 연연 천리에 뻗어 나간것이다.

관공처럼 세일 속속히 입은 무산군 에만도 수천세대의 새 집들이 일떠섰다. 그러다보니 온 무산평은 어디 가나 새 집 천지이다. 읍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세명령이 오봉리와 민봉리, 박천리, 상정리는 물론 하늘에 첫 동네로 불려오는 분암리에 이르기까지 새 집들이 솟아나 군의 면모가 달라졌다.

유서깊은 회령시도 더 아름다워졌다. 오봉지구는 회령사람 누구나 자랑하는 유명한 곳이 되었다. 무려 55동에 달하는 3층살림집들이 동시에 땅을 짚고 일떠섰다. 밀피서도 이렇듯 그늘막과 가까이에서 보낸 별천지이다. 그 살림집수만도 1,000세대를 헤아리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의 도시가 불꽃 솟아나듯 온 연사군의 읍지구를 돌아보아도 놀랍고 북방의 산악과 두만강연안에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펼친 온성군과 경흥군을 돌아보아도 가슴이 찡찡하다.

전설의 대변영기를 구가하는 우리 조국 땅에는 창조적 기적들이 무수하다. 그러나 이이하여 조국의 북변에 펼쳐진 이 광활한 온성군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는것인가.

인민사수전, 인민부투의 빛나는 승리! 이것이 행성을 진감하는 오늘의 사면의 불덩이같은 제명이다. 인민사수전, 아군은 사면에도 없고 세상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의미는 백지우에 의거기 전에 전화위부의 북구기적이 창조된 새 조국의 북변천리에 산 화폭으로 새겨진것이다.

회한 새 집들도, 눈부신 솟아오른 새 마을들과 세 거리들도 광채하듯 온갖 가슴을 치는것은 행복에 울고있는 북변인민들의 모습이다.

크고 멋진 새 집을 받아안게 된것이 너무나도 꿈만 같아 자다가도 일어나 새 집을 돌아본다 한 로인, 집이 무너졌을 뻔 이웃들이 우리를 걱정해주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두분을 눈물로 적신듯 농장원, 혼자 살던 집이 무너졌기에 내제까지 어떻게 새 집이 지어지려 했는나네에게도 평상한 새 집을 인제주었다고 하며 너무나도 행복에 울부짖는 플라하린 한 어린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최한민 타이소가 우리 마을에도 생겼다고 기뻐하며 조급한 듯이 어도 아이를 낳고싶은 심정이라고 웃고 떠들던 정종환의 신이산리마을인들.

소소리치는 대제년의 시각은 언제였는가 싶게 행복에 젖고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우리 땅이 걸친 인민사수전의 향미에 대하여, 그 고귀함과 성스러운데 대하여 그리워 가슴치며 새겨지는 화폭이 어디에 있었는가.

위대한 조선로동당이여! 북부지역 인민들이 심장으로 리지는 이 부름은 그래서 온 행성을 진감할만큼 뜨겁고 열렬하다. 땅을 굳게 밟고 마르는 인민의 신념, 사회주의를 온몸으로 신뢰하는 인민의

가슴터질듯 한 환희와 격정, 눈부신과 목에 임의 천리만이 있을뿐이다. 세상이 만복으로 바뀌우고 참혹한 상처를 가시며 눈부신 창조적 선경이 솟은 땅, 불행의 주인공들이 행복의 상상봉에 높이 올라 온 세상을 보란듯이 굽어보는 이 특대사변이아말로 역사적인 2016년의 최절정이며 조선로동당의 젊은 당기아래서 한 태어난수 있는 세계사적기적이다.

인습이 때때, 천배로 역사어진 북변땅이다.

우리가 선 여기는 무산군 상정리, 관공 피해를 복습하게 입은 마을들중의 하나이다. 기쁨의 땅과 오붓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것은 관공이 남긴 다늘은 해변가를 방불케 하는 드넓은 모래밭이다. 집도 가신도, 정을 묻은 대지도 그렇게 하루이침에 잃은 사람들의 심정 얼마나 억이 막혔으랴. 한마을에서 살던 새 자식모두가 동시에 집을 잃은 온은옥 할머니의 경우는 더했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 밤이 와도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꿈같은 일인가. 불과 수습일만에 그 새 자식모두에게 한달한시에 새 집이 차례되었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 온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우리리 관철을 삼가 드린다. 이 집들을 대를 이어 물려가라고, 우리 집들을 대를 이어 물려가라고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 격정을 이기지 못 우리 원수님들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한자도 한자 눈물로 적시며 쓰다 그 모습...

회령시 인제리의 한 녀성이 들려주던 이야기도 가슴을 친다. 아버지도 학교에 나가고 어머니도 집에 없는데 갑자기 들어닥친 사나운 관공과 맞닿을런 어떤 아들이었다. 딸리 데리하라고 집안의 문을 두드리는 목소리는 다급히 울리는데 딸이 소리가 들에 안온것은 무엇이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였다. 누가 시킨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어떤 가슴에도 억세게 지퍼없는 믿음,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던 새 집도, 새 학교도 생겼다. 새 집의 믿음은 안고 그렇게 강한 동행 한 아들을 쓰리게 품어 안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후려왔던가. 그 어린 아들이 우리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충도원아 영을 간다고 너무 기뻐 잠 못 이루며, 우리 새 집이 벌써 기와를 얹고 상문을 단다고 손으로 떠들며 자랑하듯 내친 목소리를 들었었다. 어린 마음에 간직된 마음 같은 믿음도 굳건히 지켜주는 고마운 봄, 인민이 반드시 행복이 오고 마르던 만복이 인제지는 그처럼 소중한 봄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말할 때에도 온넌을 붙여주는 녀인.

북변천리는 이런 이야기로 딱 차있다. 어느 한 마을에서 보았던 대제년의 시각을 생생히 되새겨주는 영성담주년의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강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이신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민사랑의 서사시였다.

술가락, 저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식량과 기초식품, 사연같은 불고기며 부식 불과 멸갈, 모호와 이불, 내의류와 손목, 아이들의 학용품, 거의 매일이다싶이 받아안은 다정하고 뜨거운 사랑과 온정... 그중에서도 새 집 이야기는 북부지역 인민들 누구나 눈물속에 울고있는 이야기였다. 지금은 인강현황에서 벗어나 안 될 원수적요소이다. 그래서 집을 두고 살의 보금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대제년의 그날 피해지역 인민들의 마음을 케일 아르게 리민것도 바로 무너진 집이었다. 오죽하면 녀인들이 자다가도 일어나 뒤에서 울리는는 문뜰에 잠겨버린 집자리를 하얏없이 바라보곤 하였었는가. 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단 며칠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은 이 피해지역을 격정으로 불태웠다.

나리에서 새 집을 지어준다는 소식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께문에 침시마져 잊으신채 하루빨리 새 집을 지어준 력사에 류제없는 작전을 펼치신다는 소식이였다.

우리가 뭐라고 할때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집을 지어준단 말입니까! 온 북부지역 인민들이 울었다.

대우 놀라운것은 그 많은 집을 겨우이 오기 전에 꼭 지어주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이 건국에 돌리시는 눈으로 보신것이다.

행복의 단상에 놓이도 싶었다. 경양유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로부터 양로원의 로인들, 무질같은 은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마음속 아픈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가슴속에 운명의 슬픔으로 간직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어찌는 라신당면한 인민들이 전화위부의 주인공이 되었고 오늘날은 또 북부평해지역 인민들이 세상에 없는 건설의 주인공들로 된것이다.

우리는 대제년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수습일의 나날을 머슴해보았다. 그것은 그대로 사랑과 정의 임력이었다.







# 더 높이 울려가라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여 온 나라에 차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 친다. 당의 후대관이 비친 세상에 울도 없는 아이들의 호명, 아이들의 궁핍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전희위원의 첫 주 인봉인 북부피해지역 아이들이 아영의 나날 온 세계를 향해 소리쳐 부르던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웅대한 노래소리다.

어제 송도원의 푸르른 하늘가 만이라, 아영이 펼쳐 펼쳐지는 온 나라의 명산과 명소마다에서, 아이들의 왕궁인 내 조국의 어디 가나 수놓아진 웃음있는 소년공진과 소년회관마다에서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유인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심장으로 미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가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비로 우리 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내대와 새기를 이어가며 더해 만지는 질세라 인들의 피아로운 사랑과 온정속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은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청소년들의 교양기지에서서 자기의 재능을 마

음껏 꽃피우며 선군조선의 기동강으로 역세게 자라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이 땅에는 얼마나 가슴 뜨거운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송고한 력사가 면면히 흘러왔는가.

오늘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온례로운 사랑의 력사를 우리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오날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온례로운 사랑의 력사를 우리는 언제나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평양학생소년공진에 전희위원의 제비마를 그리고 평양학생들의 총합적인 파괴교양기지, 인내양성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새로 건설된 평양학생소년공진들 뿐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대영의 모습이 숨쉬며 아로새겨져 있다.

뜻깊은 그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진이 마련되었거니와 그리도 깊어서 《우리도 지금 공진소조애를 내리려면 얼마나 좋겠소.》라고 하시며 평양학생들이 풀리지 않는 만년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수령님!

우시웠던 평양의 장대세연터에 아이들의 정열을 지어주는 구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었다.

해방후 어느때 가을날 애국적

인 상공인들을 몸가짜이 불러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헌납한 건국회사로써 어떤 사업을 하든 흥했는지 걱정할 줄을 아야 기뻐하고 하시었다. 모두가 이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수 있는 길을 지었으면 하는것이 자기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라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주시던 수령님께서도 그 하나하나의 참조를마다에는 우리 후대들을 나라의 억울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영세하게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피아로운 사랑과 온정이 뜨겁게 깃들여 있었다.

오늘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아영소, 평양시도화산동산소년단아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공진을 비롯한 전희위원들의 사랑의 손길은 어린 공진과 아영소들 속에서 사랑할만 한 것들이건속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지고 우리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것 같아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대세연에 새우면 좋을것이라고 친히 그 자리까지 잡이주셨다. 이렇게 되어 한눈의 자국이 그처럼 귀한 해방후 어려운 시기 수도 평양의 장대세연터에는 공진건설이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후 평양학생소년공진은 전희위원의 제비마를 남기지 않고 찾아온 기념비적장소들중중의 하나로 내 조국의 력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

들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피아로운 사랑과 온정이 이 땅에는 또 얼마나 많은 소년공진과 소년단아영소, 소년회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는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그 하나하나의 참조를마다에는 우리 후대들을 나라의 억울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영세하게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피아로운 사랑과 온정이 뜨겁게 깃들여 있었다.

오늘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아영소, 평양시도화산동산소년단아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공진을 비롯한 전희위원들의 사랑의 손길은 어린 공진과 아영소들 속에서 사랑할만 한 것들이건속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지고 우리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것 같아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대세연에 새우면 좋을것이라고 친히 그 자리까지 잡이주셨다. 이렇게 되어 한눈의 자국이 그처럼 귀한 해방후 어려운 시기 수도 평양의 장대세연터에는 공진건설이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후 평양학생소년공진은 전희위원의 제비마를 남기지 않고 찾아온 기념비적장소들중중의 하나로 내 조국의 력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

들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피아로운 사랑과 온정이 이 땅에는 또 얼마나 많은 소년공진과 소년단아영소, 소년회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는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그 하나하나의 참조를마다에는 우리 후대들을 나라의 억울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영세하게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피아로운 사랑과 온정이 뜨겁게 깃들여 있었다.

오늘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아영소, 평양시도화산동산소년단아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공진을 비롯한 전희위원들의 사랑의 손길은 어린 공진과 아영소들 속에서 사랑할만 한 것들이건속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지고 우리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인 것 같아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대세연에 새우면 좋을것이라고 친히 그 자리까지 잡이주셨다. 이렇게 되어 한눈의 자국이 그처럼 귀한 해방후 어려운 시기 수도 평양의 장대세연터에는 공진건설이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었으며 그 후 평양학생소년공진은 전희위원의 제비마를 남기지 않고 찾아온 기념비적장소들중중의 하나로 내 조국의 력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

##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자란다

이 땅 제일 좋은 곳에 훌륭하게 일떠선 건물들은 아이들도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파괴교양기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정애하는 원수님.

그날 우리가 접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을 하고있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들에게 온 세상이 무리하는 행복을 마련해주어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영원히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소년단아영소를 돌아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즐거워진다고는 우리가 환하도록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정애하는 원수님을 부르며 온 나라 인민들과 아이들이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를 다시한번 정성으로 경배하였다.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온정 넘치는 아이들의 공진,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마다에서는 지금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식별하게 자라는 학생소년들의 활랑한 모습과, 웃음소리가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때아리와 더불어 온 나라에 일떠선 청소년들의 파괴교양기지는 학생소년들을 위한 질세라 인들의 온례로운 사랑의 력사를 깊이 전하여 영원히 찾아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안주시 학생소년회관을 찾아서

축주소조원들입니다.》

회관에 대한 그의 자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면서 그는 우리에게 한 학생을 가리키며 힘의 주장인데 이런 경건회관에서 어떻게 풀을 넣은 기동선수라고, 우리 축주소조원들모두가 유망한 축주소조원이 되어 공화국을 창공이 휘날릴 꿈을 안고있는 재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우리는 반장의 안내를 받으며 미술소조에 들어갔다. 퍼스한 해일이 창가에 비쳐드는 아늑한 소조실에서는 소조원들이 소조실안에 머뭇머뭇했다.

미술소조는 지난 기간 소조원들의 연필화집 《사랑따윈 부러짐》, 《나도 1학년》을 비롯하여 많은 미술작품들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려 기쁨을 드린 자랑찬 소조이다. 이제 저물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재간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고되었다.

회관에서 배운 재지술에서 누구는 공화국선수원보유자가 되었고 또 누구는 전문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고있다는 리옹경동무의 자랑을 들으며 우리는 수확소조실과 탁구소조실 등 여러 소조실들을 돌아보았다. 자기 희망과 소조에 따라 마음껏 배워가고 있는 학생들의 광명한 웃음을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는 우리의 귀전에 문득 가아금소리가 울려왔다.

《올해에 진행된 제 4 2 차 정일룡상 전국학생체육경기대회 축주경기에서 1등을 한

후경은 기력에 이끌려 민중기악소조에 들어서니 나아린 소년가 자기 키보다 큰 가아금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아금울림기며 노래 《나이야 꽃봉오리》를 연주하고있었다. 연례연망 갈림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지도교인 김일성동무는 가아금을 연주하고있는 리옹경동무의 나이가 이제 7살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제법 어찌까지 들켜기며 연주하는 리옹경동무의 모습을 웃음속에 바라보는 우리에게 리옹경동무가 말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성장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돈 한푼 붙이지 않고 자식들이 재간들이 자라나니 정말 사후의제도도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입니다.》

순간 우리의 가슴은 뭉클했어졌다. 자식들 높은 부모를도 미쳐 몰랐던 능는의 약속을 어안아 꽃피우려는 고마운 나라, 국가가 학부형이 되어 재간들이 키워주는 이런 나라가 이 세상 어디 또 있나.

정녕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자기의 희망과 부를 마음껏 꽃피우려는 학생소년회관이야말로 나아린 재간들이들의 보금자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서 조국의 장상한 미래를 그려보며 회관을 떠났다.

신철

경애하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성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라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얼마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북부피해지역 아이들을 위한 아영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서서히 제양되는 소년단아영기, 아영의 시작과 함께 노래가 흐르는 아영기어간단 기쁨을 우리르는 아이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시울도 젖어들었다.

송도원의 푸르른 하늘가에 펼쳐지는 아영기, 무심히 볼수 없고 무심히 볼수 없는 기쁨이며 행복소리가.

제양의 난파도에서 아영을 칸다는 풀같은 소식에 접하고 울고웃으며 달려온 아이들이 따뜻이 감싸안은 사랑의 품에도 잡고 부모없고 학교있고 보금자리를 잃은 나아린 소년들을 행복의 최정점에 올려놓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시대의 주제가, 사회주의 찬가가 되며 내 조국의 푸르른 하늘가로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서 아이들은 울었다. 그리고 온 나라 인민들이 대세난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 울도 없는 아이들의 궁핍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에 눈이 베풀어 아영기를 바라보며 눈이 울었다.

그 기쁨속에 이 땅의 원만자식들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온정함이 어려웠다.

정녕 북부피해지역의 나아린 소년단원들을 위해 송도원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제세의 실음으로 용어리진 애 어린 마음들을 따뜻이 녹여준 우리 당의 온례로운 손길, 다가오는 북부전역에서의 전희위원을 세상에 선인한 승리의 기지로 우리의 신장속에 소중한 자리잡았다.

아영을 마치고 아이들은 떠나갔다. 그러나 그날의 소년단아영기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깊이 전하여 내 조국의 푸르른 하늘가에 영원토록 휘날릴것이다.

그 어린 전지공과에도 번치 않을 총정과 보담의 불라는 맹세를 담고,

열금명

수도 평양의 광복거리에서 이 땅의 새 세대들을 두팔벌려 따스히 안아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을 형성한 기념비적 건축인 만경대학생소년공진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광복대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유인이다.》

얼마전 우리 당의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꽃피우려던 이 땅의 공진들 돌아보던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방이로써 세련한 한 성악소조실이라고 하였다.

거기에서는 지난해 11월 중공을 앞두고 찾아오신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들리시었던 매처럼 아이들의 맑고 장상한 노래소리가 울려 나가고 있었다.

그 노래에 울며 울지 않는 우리들은 온 나라 인민이 사랑하는 명가수이며 이 소조실의 지도교인인 전희위원과 만경대 맞아주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뜻깊게 맞이했던 한해전의 일을 감격속에 더듬었다.

《우리 학생들이 세가 라는 피아노에 맞추어 노래연습을 하고있는데 물론 소조실들이 열리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고있는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들어오시지는 않았을것이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음

조진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민선생님의 보, 김형선선생님과 장만석선생님의 보에 꽃다발을 올리고 축하하였다.

만경대교향제를 찾은 그들은 이 력사의 정에서 만경대에서 열출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이본들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속에 새기며 보진된 자식들을 길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질곡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장만석선생님의 혁명

성악가들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성악소조원들을 만나보고

동동 주르르 기뻐하는 소조원들이는 나라에 전해졌 때 만부들은 절정에 눈을 비비고 보고 또 보고도 한다.

그때부터 수동사람들은 평양에 올라오던 자기 고장의 자랑인 나아린 소년단원이 아름다움의 희망 노래에 따라 리지는 만경대학생소년공전 성악소조를 찾았다는 기쁘고 고경된 참관로정처럼 되었다.

소조원들가운데는 정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조선소년단원들 70여명중 학생소년들의 총합수인 《세상에 부림없어라》에 출연한 전승영학생도 있었다.

우리와 만난 전승영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 후대에서 지는 피아노를 리며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관망하여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노래는 세가 작사작곡한 노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다 원수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라양의 축복받은 앞날의 성악가들

말해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어 주시었습니다.》

그때 송영이는 원수님의 피아로운 손길에 떠맡달려 하려는 절정 날아오르는 심정이였다.

리일경, 전승영이 아닌 우리의 수많은 행복들이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서 눈부신 꿈의 하늘을 높이 날아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방도시의 이 품없는 소녀에 불과하였던 전희영동무도 위대한 수령님의 온례로운 사랑속에 수도 평양의 훌륭한 파괴교양기지에

우리와 만난 전승영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 후대에서 지는 피아노를 리며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관망하여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노래는 세가 작사작곡한 노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다 원수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우리와 똑같은 명가수로, 나라의 예술인재로 자라나지 않았던가.

그가 학생시절에 불렀던 노래 《나이야 꽃봉오리》의 구절이 절이 되게된다. 본바탕이 되어와서도 아니고 풀밭나비 날아와서도 아니며 오직 원수님 사랑만이 빛나듯 피어주는 꽃봉오리가 바로 나라고 노래하는 조선의 새 세대들의 긍지높은 애아이다.

만경대학생소년공전 성악소조에 울리는 아이들의 광명한 노래소리, 매 노래의 선율을 서로 말라도 우리에게는 온례로운 라양의 축복받은 아름다운 꽃봉오리들의 하나의 노래로 들려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와 김일성 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총련일군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병동자 김일성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7일 강령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일군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평도로 후손만대의 흥성번영을 위한 억만년기쁨을 마련해주셨으니

은 수령님에게 삼가 인사드리었다.

대표단원들은 온장보은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피우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은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금을 남기었다.

은 수령님에게 삼가 인사드리었다.

대표단원들은 온장보은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피우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은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금을 남기었다.

은 수령님에게 삼가 인사드리었다.

대표단원들은 온장보은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피우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은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금을 남기었다.

은 수령님에게 삼가 인사드리었다.

대표단원들은 온장보은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피우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은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금을 남기었다.

은 수령님에게 삼가 인사드리었다.

대표단원들은 온장보은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피우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은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금을 남기었다.

은 수령님에게 삼가 인사드리었다.

대표단원들은 온장보은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피우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은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금을 남기었다.

은 수령님에게 삼가 인사드리었다.

대표단원들은 온장보은실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피우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은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후에 금을 남기었다.

2016년 메라노컵 방상회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귀국

2016년 메라노컵 방상회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17일 귀국하였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루마니아, 도미니칸을 비롯한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120여명이 참가하였다.

2016년 아시아컵 공개방상회경기대회에 금메달수상자들이 우리 나라의 현대육, 김주식 선수들은 다양한 기교표적을

용용히 수행하여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방상동맹 세계방상회경기선수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평양역에서 차치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 가족들이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보기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평양국제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용용히 수행하여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방상동맹 세계방상회경기선수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평양역에서 차치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 가족들이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보기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평양국제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용용히 수행하여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방상동맹 세계방상회경기선수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평양역에서 차치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 가족들이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보기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평양국제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용용히 수행하여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방상동맹 세계방상회경기선수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평양역에서 차치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 가족들이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보기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평양국제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용용히 수행하여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방상동맹 세계방상회경기선수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평양역에서 차치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 가족들이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보기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평양국제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용용히 수행하여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방상동맹 세계방상회경기선수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평양역에서 차치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 가족들이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보기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평양국제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용용히 수행하여 성인급 쌍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7년 국제방상동맹 세계방상회경기선수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평양역에서 차치된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 가족들이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보기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평양국제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송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7







